

“평생의 동역자”

사도행전 18:1-11

사도바울은 아덴에서 지식적으로 다른 종교들과 비교하며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오직 십자가만을 전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원색적으로 복음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로 인해 고린도에서 가장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린도는 굉장히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의 신전에서 여자 사제들은 음란한 행위를 제사로 생각했습니다. 음란함이 가득한 이 도시를 보며 사도바울은 과연 이 땅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을지 걱정하면서 심히 두려워하고 절망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고전 2:3)

사도 바울은 죄악으로 가득한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행 18:9-10)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도시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말씀을 주실 때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바울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일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동역자들을 얻게 되자, 더 힘을 얻게 되고 말씀에 붙잡혀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행 18:5)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은 무엇에 붙잡혀 있습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바울의 관심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고전 2:1-2)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것과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 오직 십자가만을 증거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고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고린도에서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그들의 입맛에 맞춘 설교를 하는 것보다, 원색적인 복음과 십자가만을 외칠때 더 강력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과정속에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평생의 동역자를 만납니다.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행 18:1-3)

이 부부는 원래 로마에 살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글라우디우스의 칙령에 따라 로마를 떠나 고린도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주의 일에 열심을 품고 헌신했던 귀한 일꾼들이었습니다. 이 부부는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사도 바울을 도우며 결국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는데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사도행전적 교회의 좋은 모델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아름답게 주의 일에 헌신하는 부부가 많이 탄생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롬 16:4)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성경에 기록된 부부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부부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어떤 이유들로 인해 이 부부가 가장 이상적이고 성경적인 부부가 되는 것일까요?

1. 그들의 결정 기준은 복음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보이지 않게 수고하고 헌신한 원동력이 되었던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고린도에서 천막을 깎는 일을 하다가 바울을 만나 은혜를 체험한 후 바울을 도우며 복음이 전해지는 사역에 힘을 보탬니다. 그들은 오직 복음 증거 사역을 위해 여러 번 이사를 다니기도 합니다.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에베소에서 로마로.. 그들이 자신의 거처를 옮기는 기준은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기준으로 집을 이사하십니까?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이사를 하십니까? 아니면 자녀들의 학군을 고려해서 이사를 하십니까?

이러한 요소들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요소들이 우리가 집을 옮기고 거처를 정하는 것에 있어서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는 것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도 집을 이사함에 있어서 조금더 성경적인 잣대를 가지고, 신앙적 기준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곳, 또 내가 복음이 전해지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곳을 기도하며 결정해야 합니다.

2. 충성된 동역자였습니다.

이들 부부는 충성된 동역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 더 큰 범주로 하나님의 사역에는 심지어 그들의 목숨도 내어 놓는다는 표현(롬 16:4)이 있을 정도로 그들은 주의 일에 헌신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적당히 참여하는 사역이 아니라, 이들 부부는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어 놓고 복음을 위해 뛰어 들었던 충성된 동역자였습니다.

3. 자기 집을 교회로 사용했습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롬 16:5)

자기 집을 공공의 장소로 개방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살림을 감당하는 여자 입장에서는 더더구나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는 자신의 집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의 공간으로 개방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들은 바울보다도 어려운 결정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쯤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자녀 양육이나 교육을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자녀 양육을 하는가?"

"하나님은 내 성공을 위해 필요한 존재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을 하는가?"

우리 인생에 많은 중요한 가치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선순위의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직업, 우리의 성공,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며 그 우선순위에 혼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새로운 도시, 고린도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부담감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로 인해 평생의 사역을 함께 할 귀한 동역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평생을 신앙으로 함께 할 동역자가 있습니까? 신앙의 친구가 존재하십니까? 평생을 함께 할 동역자도 만나고, 누군가에게 그런 동역자가 되어 주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눔의 시간

1.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상적이고 성경적인 부부인 이유 세가지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 닿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도 함께 나누어 봅시다.
2. 나(또는 우리 가정)는 우리교회의 많은 사역 가운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동역하고 협력할만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역에 어떤 영역에서 동역자가 될 수 있을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3. 우리는 성광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장'이라는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바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평생의 동역자가 있었듯이, 나(또는 우리 가정)는, 그렇게 함께 기도해주며 마음을 나눌 '평생 동역자', '신앙적 친구'가 있습니까? 또는 다른 누군가에게 나는 그런 존재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 목장이 그런 대안이 될 수는 없을까요? 목자의 인도에 따라 그런 동역자를 만나고, 또 내가 그런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 봅시다.